

Q.

그림책 읽어주기가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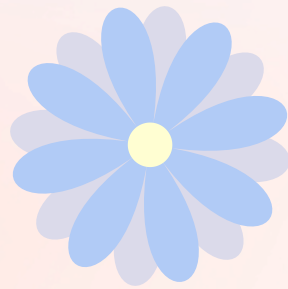
부모가 피곤한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루를 버텨낸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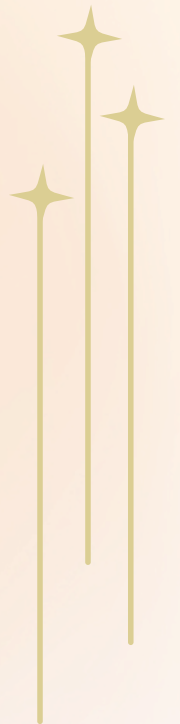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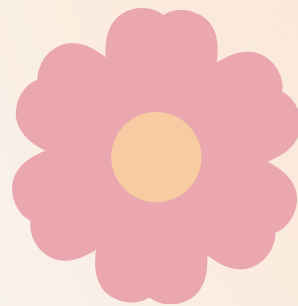
피곤함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돌봄을 충분히 해냈다는 신호입니다.

매번 '육성 낭독'으로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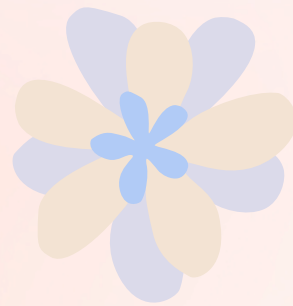
목이 아프다면 속삭이듯 읽어도 되고,
문장을 줄이거나 그림만 함께 바라봐도
충분합니다.

책을 '다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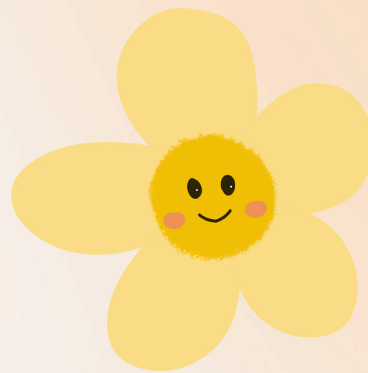
한 권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에서 멈춰도 영유아의 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영유아가 있을 때
'같이' 읽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한 영유아씩 완벽하게 읽어주려 애쓰기보다
한 권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부모의 쉬도 영유아에게 중요한 배움입니다.



“오늘은 엄마(아빠)가 조금 쉬고 싶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모습에서
영유아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영유아에게 남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의 온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짧아도, 피곤한 날의 책 읽기는
영유아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